

Planning National Library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Possibilities and Practicalities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國家圖書館體制 計劃

—可能性 및 實踐性—

맨마스 사바릴 著
金 泰 樹 譯
(KORSTIC資料部)

譯者註：本論文은 1976. 5. 31~6. 5 서울에서 開催된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에서 發表된 것을 번역한 것이다. 著者인 Maenmas Chavalit氏는 現在 泰國國立圖書館長에 在職하고 있다.

1. 서 론

각종 專門會議나 세미나에 제출된 冊子 혹은 보고서를 통해서, 일반적인 國家圖書館서비스나 시스템에 관한 기사는 이미 상당한 量에 달하고 있고 그중에는 개발도상국가에 관련된 것도 있다. 이 논문은 可能性과 實踐性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의 제한이 본 논문의 작성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가능하고 또 실질적인가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회의보고서나 기타 논문을 살펴보면 한 國家에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실질적인 것도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문화상태가 相異한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큰 대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국가에 있어서는 대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바라다면 거기에는 한가지 방법 이외의 여러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특수한 조건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의 國家圖書館 시스템 설계자에게 다소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가능성과 실현성에 관하여 각국의 도서관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서나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거나 질문지를 이용해서 조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 말미에 있는 참고자료목록과 같이 각종 전문회의나 세미나에 제출된 연구논문을 기초로한 文獻研究이다.

2. 開發途上國의 도서관 서어비스

2.1.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貧困의 상태나 개발수준이 다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국가들은 이미 “저개발”의 단계를 벗어났고 오히려 문화적인 분야에서는 “高度의 先進國”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 어떤 국가들은 상당한 富를 누리고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1.1. 1인당 國民所得이 낮고, 농업 및 산업 생산이 제한되어어있고 開發되거나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天然資源(비록 대단히 풍부한 資源일지라도), 낮은 住宅보급, 부적당한 運送 및 通信設備 등을 포함한 빈곤한 국가

2.1.2. 높은 文盲率과 大衆教育을 위한 教育水準이 낮고, 教育의 重要性이 知識이나 情報를 획득하는것 보다는 入試에 주어져있고, 情報나 지식의 보급이 口傳으로 이루어지고 讀書習慣이 개발되지 않고 出版物이 부적당한 국가

2.1.3. 과학기술 수준이 낮고 과학기술훈련 및 연구가 부족하며, 장비나 실험연구실이 부족한 국가

2.2.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서관 발전은 위에 기술한 여러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리적인 문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수들조차도 도서관 서비스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2.1.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는 資金의 부족, 자격있는 사서의 부족, 도서관 사서의 熱意나 創意力의 부족, 적당한 건물이나 토지의 부족, 自國語로된 인쇄물이나 기타 형태의 情報부족, 회귀본이나 귀중본의 管理手段의 부족, 자료관리의 현대적 技法 부족 등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국가에서는 多國語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서관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이다.

2.2.2. 도서관 자체 문제로서 적당한 관리 및 조직체계가 세워져있지 않다. 相互協力이나 整이 잘 되지않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도서관들이 조직적인 계획없이 독자적으로 설립되었다. 이것은 불필요한 자료의 重複이나 人力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많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制限하게 만들었으며 어떤 도서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점을 지우게 하였다. 대체로 이용자가 어떤 수준의 이용자인간에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도서관 서비스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2.2.3.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대학이나 특수도서관에서 이미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도서관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예를들면 도서관 및 書誌業務에 대한 컴퓨터의 응용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大圖書館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 또 書誌活動이나 기타 정보활동에 있어서 국가적이나 지역적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2.2.4. 많은 개발계획이 특히 그 초기단계에서 Unesco나 선진국과 같은 국제적 혹은 지역적 기구에 의하여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1974년 9월, Unesco는 “국가정보관리, 도서관 및 고문서관리 계획에 관한 정부간 회의”를 조직하였고 여기에서 NATIS의 개념을 만들었다. 즉 국가발전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하는 하나의 통합된 국가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NATIS개념은 政府間會議에 참가한 대표로부터 인준을 받았고 그후 Unesco 제18차 총회에서 인준을 얻었다.

1975년 국가정보관리계획에 관한 정부간회의의 최종 보고서는 회원국이 취해야 할 12개의 목표를 수록하고 있다. 1975년 8월 Oslo에서 개최된 국립도서관장 회의에서 국가 및 국제정보시스템에서의 국립도서관의 역할에 관하여 토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국가도서관서비스의 발전계획과 관련된 국립도서관의 주된 임무와 국제정보시스템의 발전과 국립도서관의 임무가 동시에 토의되었다.

1975년 12월 제5차 동남아시아사서회의가 인도네시아의 Jakarta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NATIS의 조

직아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통합된 정보시스템의 설립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NATIS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또 NATIS 개념에 관한 2개의 회의결과와, 1971년 영국 Liverpool에서 개최된 개발도상국을 위한 IFLA세미나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졌다.

4. NATIS의 설립계획을 위한 회원국의 12가지 행동목표

1) 국가정보정책

모든 사회분야 및 그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국가정보정책은 국가정보계획의 수립을 유도하도록 구성되어야하며 국가정보계획의 諸要素들이 국가개발계획 속에 충분히 통합되어야 한다.

2) 이용자의 인식에 대한 자극

이용자의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들은 NATIS의 모든 요소를 이용하여 情報資源의 이용에 관한 조직적인 학습방법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독서습관의 증진

독서습관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하여 NATIS조직내에 있는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조직체들은 적당한 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광범위한 잠재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 한다.

4) 이용자 요구분석

국가정보시스템(NATIS)이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정보요구를 상세히 분석하여야하며 아울러 기업이나 연구소, 교육계와 같은 다양한 이용자집단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5) 현존 情報資源의 分析

NATIS개발을 위한 전천한 국가계획의 필수적인 선행조건으로서 현재의 국내정보센터, 도서관 및 문서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6) 人的資源 分析

NATIS에 대한 장차의 수요를 예견하고 人力수급계획의 기초자료로서 현재 국내인적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7) NATIS의 조직적인 구성망 설계

모든 정보센터, 도서관 및 문서관리 서비스의 기

능은 하나의 중앙기구를 통해서 국가정보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달에 최대한으로 공헌하게 될 것이다.

8) NATIS에 필요한 인력공급

情報人力의 專門教育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교육계획이 국가교육기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대학이나 기타 그와 동등한 고등교육기관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정보시스템(NATIS)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다양한 수준의 자격있는 要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전문요원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補助要員에 대한 교과과정도 전문과정과 별도로 국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중등교육기관 혹은 고등교육기관내에 조직되어야 한다.

9) NATIS의 기술수요 판단

국가정보계획 내에 정보技法을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존 정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정보기법의 적합성이나 표준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NATIS내의 적당한 조직체 속에 설치되어야 한다.

10) NATIS를 위한 법적조치

국가정보시스템(NATIS)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조치는 그 초기단계에서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법적조치에는 시스템의 개념상의 논리와, 모든 전문화된 부속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개개의 구성요소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11) NATIS의 財政

국가정보시스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세계서지통제

세계서지통제(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의 개념은 개개의 국가가 自國內의 국가서지통제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들 각국의 서지통제시스템을 새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의 서지사항을 그 출판물이 발행될 때 통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모든 목표는 국가정보시스템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어떤 목표들은 이미 개발도상국가에서 여러가지 상이한 수준으로 직면하고 있다. NATIS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서비스의 전체 상황을 조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다. 즉 NATIS시스템의 개개의 구성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며 구성단체간의 불균형은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중복되는 일이나 過重한 업무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나서 하나의 통합된 국가정보시스템을 계획하는데 있다.

5. 전체 국가정보시스템의 한 부분인 국가도서관시스템을 계획함에 있어서 국내 유용 정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중복업무를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다.

5.1.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에 관한 국가의 정책이다.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정보정책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制定 실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국립도서관법, 공공도서관법, 납본법, 문서보관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정보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제정보정책은 이 정책의 수행을 책임진 기구에 맡겨져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중복업무나 과중한 업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한 상호협력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5.2.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진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文盲者로부터 고도의 전문교육을 받은 학자나 기술자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이상적이다. 동일한 시간에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다. J.H. d'Olier와 B. Delmas는 "정보센터, 도서관 및 문서보존을 위한 국내 조직의 설계"라는 책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표본을 작성하였다. 즉 自國과 관련된 主題, 국내자원에 관한 지리학분야, 국민에 관한 자료, 관습, 기술 및 건강 등이다.

5.3. 고려해야할 또 다른 가능성과 실천성은 정보센터와 도서관과의 통합이다. 현재의 시설이나 각 분야의 발전 수준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 국내의 모든 도서관과 정보센터가 산하기구가 되어 하나의 국가기구로서 중앙집중식의 형태의 조직망을 구성할수도 있고, 또 기능이나 관련분야, 혹은 지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분산된 형태의 조직망을 구성할 수도 있다. Olier와 Delmas도 중요한 정보기능에 따라 분산

된 조직망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a) 공공독서, 문화 및 일반교육

(b) 과학기술서적이거나 문헌제공

(c) 서지

(d) 과학기술자 및 전문가의 직접적인 정보망 구성 등이다.

5.4.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된 협력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협력조치가 실질적이며 또 채택 가능한것임을 알 수 있다. 국가도서관서비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협력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느 주제나 혹은 어떤 형태의 자료를 공동으로 구입한다든가, 종합목록작성, 도서관 상호대차제도, 자료나 사서의 교환, 중앙집중식 자료처리 등의 협력방안이 그것이다. 자발적인 협력체계는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협력체계에 참가한 기관의 수준이 다양한 경우에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

5.5.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문맹과 自國語로된 도서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도서관, 특히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주된 임무는 문맹을 퇴치하고 독서습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 임무는 국가정책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서출판도 증대되어야 한다.

5.6. 자료의 획득이란 점에서 볼 때 여러형태의 도서관은 도서관 외부의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상호대차제도나 교환 및 자동차순회서비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들 도서관의 장서를 개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실질적인 방법이다.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또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필요로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도서관 장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Anuar, Hedwig. The Integration of Library, documentation and Archives Services in Southeast Asia within the Framework of NATIS. A Paper presented to the Joint Session of the Third SABRICA Conference and Seminar and Third Conference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 Jakarta, December 1, 1975. 14p. (memeographed)
2. Chandler, George (ed.) International librarianship: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 advanced librarianship submitted to the 1971 IFLA Pre-Session Seminar for Developing Countries Sponsored by Unesco.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72. 208p.

3. Dayrit Marina G. and Namnama. P, Hidalgo. Education and Training for Librarianship in Southeast Asia.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Second Conference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 held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Quezon City, December 10—14, 1970.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ibrary' Quezon City, 1975. 289p.
4. Duchesne, R.M. The role of national librari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Working paper for the Meeting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Oslo, Aug., 12—13, 1975. National Library of Canada, 1975, 33p. (memeographed)
5. Gardner, Frank M. Public library legislation; a comparative study. Documentation, libraries and archives: studies and research 2. Unesco, 1971. 285p.
6. Gelfund, M.A.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Unesco manuals for libraries 14, 1968. 157p.
7. Lim Pui Huen, P. & Other (ed.) Proceedings of the First Conference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 held at the University of Singapore, Aug. 14—16, 1970. Published for Persatuan Perpustakaan Malaysia and Persatuan Perpustakaan Singapura by Chopma Enterprises. Singapore, 1972. 201p.
8. Nasution, A.S. Country report on library development in Indonesia. Country paper presented to the Third Conference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 December 1—5, 1975. Jakarta, Indonesia. 12p. (memeographed)
9. d'Olier, J.H. Planning national infrastructures for documentation, libraries and archives. Outline of a general policy. Unesco. 1970, 328p.
10. Penna, C.V. The planning of library and documentation services. 2nd ed. rev. by P.H. Sewell and Herman Liebaers, Unesco. 1970. 158p.
11. Wee Joo Gim. National Policies of library,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in Singapore; a country report. Third Conference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 December 1—5, 1975. Jakarta, Indonesia. 18p. (memeographed)
12. Wijasuriya, D.E.K. A Malaysian National Information System (MANIS). A paper presented to the Third Conference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 December 1—5, 1975. Jakarta, Indonesia. 14p. (memeographed)